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호 【루계 제25175호】 주체105(2016)년 2월 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체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단공화국 대통령,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꽁고공화국 대통령, 꽁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과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바논근로자련맹 총비서,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자운동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전인디아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몰도바공화국 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우크라이나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말리를 위한 련합 위원장,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모리따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 민주꽁고로동당 총비서, 민주꽁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총비서, 민주꽁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 에찌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찌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에찌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전 쏘련국방상,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로씨야련방 연해변강 장관, 하바롭스크시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네팔, 레바논,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수리아, 캄보쟈,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탄, 팔레스티나, 끼르기즈스딴, 뛰르끼예, 오만,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웰남,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몰도바, 벨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예, 슬로벤스꼬,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영국,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 기네, 나이제리아, 리비아, 말리, 모리따니, 민주꽁고, 뚜니지, 앙골라, 에찌트, 도미니까, 메히꼬, 브라질, 페루,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새해를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였다.

2015년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력사적인 해였다고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강조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새해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수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뛰르끼예조국당 위원장이 새해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사 설

화력발전소들에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보내주자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뢰성으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의 장쾌한 서막이 열리였다.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백두대지에서, 주체의 붉은 쇠물이 흐르는 금속공장들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온 나라에 전진의 활력을 더해준 상원의 세멘트생산기지에서,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주체조선의 영웅적투쟁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할 충정의 열의가 용솟음치고있다.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우리 로동계급의 충정의 열의를 더 높이 고조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

당면한 전력문제해결의 기본방도는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늘이는데 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 석탄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력발전소석탄보장을 맡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발전소들에 최소한 한달분의 최대전력생산용석탄을 선행해주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은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

결료 설비, 자재, 원료보장조건이 좋아 순조롭게 돌파한 최고생산년도수준이 아니다. 전후 1만t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6만t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낸 강선로동계급의 정신으로 승리를 떨친 상원의 로동계급이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이 이런 투쟁정신으로 혁명의 요구, 당의 요구를 대하고 심장의 피를 끓이며 떨쳐나선다면 막장마다에서 석탄폭포를 쏟아내고 전례없는 생산성과로 전력증산의 동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무한히 고무된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조선로동계급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 한마음을 안고 정초부터 생산적앙양을 세차게 일으켜 드높은 증산성과를 이룩해가고있다.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자면 일군들의 경제작전과 지휘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화력탄보장탄광들에 대한 설비와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앞세우고 탄부들에 대한 후방공급 및 로동보호물자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화력발전소석탄보장을 맡은 탄광들의 석탄생산에 대한 평가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질과 량을 엄격히 따져가며 보다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경제실무적대책을 실속있게 세우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석탄공업성에서는 화력발전소들에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석탄공업부문과 련관된 부문, 단위들, 각 성, 중앙기관들, 도급기관들에서는 탄광들에서 실질적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탄부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고 꾸준하게 조직전개해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는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증산의 돌격로를 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기업관리의 정보화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며 채굴공정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사업도 경제작전과 지휘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선진적인 채탄방법과 굴진방법을 적극 창안도입하고 막장들에 능률높은 채탄설비들과 굴진설비들을 대대적으로 넣어주어야 적은 로력, 적은 자재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수 있다.

탄광들에서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을 곳에는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고 삭도를 놓을 곳에는 삭도를 놓으며 자동차로 석탄운반을 대형화, 다양화할수 있는 곳에는 자동차운반로선을 닦아 운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리고 원격대학운영을 정상화하며 막장들과 생산현장에 이르기까지 최신과학기술성과와 자료를 전송해주는 체계를 구축하면 일군들과 탄부들 누구나가 현대과학기술로 철저히 무장하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증산의 돌격로를 열어나갈수 있다.

화력발전소석탄보장을 맡은 각지 탄광들에서 기본굴진 3년분, 준비굴진 6개월분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절약이자 곧 생산이며 애국이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은 전력소비자이기 전에 생산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기절약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자체의 특성에 맞게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을 리용한 에네르기개발사업을 활기있게 내밀어 석탄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각지 탄광들에서 통발나무회수기를 막장들에 빠짐없이 넣어주고 자체의 세멘트생산기지들을 활성화하여 갱도영구화를 실현하면 나라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석탄증산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수입에 의존하던 탄광설비들과 부속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각지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 탄광기계공장의 전문화생산지표를 늘이고 소공구생산을 정상화하며 탄광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설비와 부속품을 탄광들의 수요에 맞게 정상공급해주는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앞장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영예를 빛내여나갈것을 굳게 믿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로서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장약하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석탄공업부문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지하막장의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감으로써 투쟁열, 혁명열로 끓어번지는 격전장마다에 비약의 숨결을 더해주어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석탄전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며 고속도굴진운동과 증산경쟁운동의 봉화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은 당의 요구, 혁명의 요구, 인민의 기대라는것을 높뛰는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돌격, 총매진해나가자.

상원로동계급처럼 승전포성을 힘차게 울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충정과 애국열의를 안고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1월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전진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월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굴진소대들을 한개씩 맡고 내려가 걸린 문제도 풀어주고 굴진공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매일 굴진과제를 150%이상 넘쳐 수행하도록 하였다.

룡등탄광 김광일굴진소대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굴진소대들에서는 1월 한달동안에 만도 계획보다 더 많은 굴진을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부족되는 100대의 탄차를 자체로 생산보장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룡등탄광과 탄광기계공장에서 계획된 탄차를 생산보장함으로써 운반능력을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아래 10여개의 단위들에서 많은 량의 과철을 수집하여 탄차바퀴와 탄차부속품생산을 다그치는데 크게 한몫하였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운반작업의 현대화를 실현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룡등탄광 3갱에 140m의 벨트콘베아를 설치하여 석탄운반실적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이 경험을 살려 룡등탄광의 여러 갱들에 벨트콘베아화를 실현하여 석탄운반능력을 지금보다 2배이상 늘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혁신과 비약의 불길은 룡수탄광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 1월 30일까지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탄광에서는 불리한 생산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당, 행정일군들이 한개 생산중대씩 맡고 막장에 들어가 정치사업도 하고 석탄도 캐면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1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떠밀어주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석탄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새해 정초부터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며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5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로천분광산에서는 대형굴착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선행공정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갔다. 그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그 어느때보다 짜고들어 강추위속에서도 설비가동률을 높이였으며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였다.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채광도로상태를 환히 꿰들고 1t의 철광석과 박토라도 더 실어나르기 위해 과감한 투쟁을 벌리면서 맡겨진 수송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순천화력발전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1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곳 일군들은 연료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보이라와 타빈발전기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열생산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속에서도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파열기의 관교체와 용접작업을 짧은 시간에 해제끼고 보이라를 철저히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면서 매일 많은 량의 증기를 생산보장하였다.

전기직장 일군들과 담당기사, 기능공들이 독특한 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종전방식대로 하면 2시간이상 걸려야 할 1호주변압기의 정비보수과제를 불과 40분만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맡겨진 생산과제를 일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다.

1교대운전공들을 비롯한 타빈직장의 전력생산자들이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설비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하차직장과 운탄직장 로동자들이 콘베아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수리정비를 깐지게 하면서 석탄이 들어오는족족 제때에 부리우고 보이라들에 지체없이 보내주었다.

전기타빈보수직장과 화학직장, 자력갱생직장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급수전동기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탈염수생산과 공급, 여러가지 예비부속품보장과 뽈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였다.

순천화력발전소 로동계급의 불보다 뜨거운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전력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평양식료련합기업소에서

식료일용공업성 평양식료련합기업소에서 1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에서는 콩우유가루, 애기젖가루를 비롯한 어린이식료품과 당과류, 청량음료, 기초식품 등 중요지표별현물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식료공장들에서 대중의 창조적열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올해 1월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앞장섰다.

이들은 현대화된 설비들에 정통하고 높은 과학기술로 무장하여 맛있고 영양가높은 갖가지 어린이식료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매일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다.

대동강식료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에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평양곡산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집집마다에서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자고 하면서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과자, 사탕 등 당과류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지난해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 수도근로자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한 평양기초식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영예군인들은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려는 일념으로 갖가지 식료품포장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본사기자

편직공업관리국에서

경공업성 편직공업관리국에서 올해의 첫달 인민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관리국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과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였다.

선교편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올해 첫 전투부터 기세좋게 달려나갔다. 공장에서는 투쟁목표를 높이 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평양양말공장에서 우리 인민들의 수요와 높아가는 질적요구에 맞게 갖가지 양말생산을 끊임없이 늘이였다. 남자양말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소학교학생들에게 차례질 제품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순천편직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활성화의 방도를 열어나갔다. 강서편직공장, 신의주편직공장에서도 1월 인민경제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자체로 열어나감으로써 공장앞에 맡겨진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애국편직물공장과 강계편직공장에서도 현대화는 곧 국산화라는 관점에서 기술개건을 힘있게 내밀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본사기자 명흥숙

산림복구전투승리를 담보하는 테라코템 개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속에 산림과학원 산림조성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우리 식의 테라코템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토양개량 및 수분보충제인 테라코템은 고흡수성수지와 비료성분으로 된 고체덩어리의 물질이다. 수분을 흡수하면 고체상태로부터 모양이 없는 겔상태로 되는 테라코템은 심은 나무가 토양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필요한 수분과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시기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는데서 테라코템을 리용하는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심은 나무의 사름률이 떨어지고있는 주요원인의 하나는 조림대상지가운데서 건조한 땅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4월부터 6월사이에는 가물시기여서 나무의 사름률에 적지 않은 부정적영향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연구소의 일군들은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는 테라코템을 완전히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갔다.

박사 고병두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 자력자강의 정신을 안고 과학연구사업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들은 과학연구기판들과의 련계밑에 테라코템의 기본구성요소로 되는 고흡수성수지와 고체비료를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연구개발하였다.

불균일계법 농마변성고흡수성수지와 다원소고체비료로 이루어진 우리 식의 테라코템은 수입제품보다 사용에서 매우 편리하다.

종전에 수입하여 리용하던것은 흙 1㎥당 1.5㎏정도 섞어서 나무를 심은 후 물주기를 해야 했지만 우리 식의 테라코템은 1㎏당 120배정도의 물에 희석하여 그속에 나무의 뿌리를 담그었다가 꺼내여 산에 심으면 된다.

수분흡착력도 더 세다. 자기 체적의 200배나 되는 수분을 흡수할뿐아니라 뿌리를 감싸고있는 흙주변의 수분도 빨아들인다. 그러면서도 토지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지난해 의주군의 4개 리에 이곳 과학자들이 개발한 테라코템을 도입한 결과 나무의 사름률을 90%이상 보장할수 있었다.

우리 식의 테라코템이 개발됨으로써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본사기자 주창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케블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

우리 장군님과 붉은 당기발

2월의 하늘가에 우리의 붉은 당기가 펄럭인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대진군의 힘찬 북소리가 강산을 진감하는 속에 2월을 맞이한 이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뜨거운 추억을 안고 당중앙위원회의 청사에 나붓기는 당기발앞에 자신들을 세워본다.

붉게 타는 노을마냥 언제나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기,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그 세찬 펄럭임을 한번도 멈추어본적이 없는 저 붉은 기폭은 다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사신 위대한 장군님, 성스러운 우리의 당기를 인민의 마음속에 순간도 꺼지지 않는 운명의 기발로 빛내여주신 우리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정녕 그이의 영원한 넋이고 승리와 영광의 표대인 조선로동당기여서 이 나라 천만군민모두가 힘차게 나붓기는 당기를 우러르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조선로동당기,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뜻깊은 구절마다에 밑줄을 그으시며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온다.

그 시각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뜨겁게 넘쳐흐른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빛나게 아로새긴 우리의 당기를 력사의 폭풍우속에서도 높이 휘날려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였으랴.

진정 혁명생애의 나날 당기발의 위대한 기수가 되시여 조선로동당을 가장 강위력하고 존엄높은 당,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지금도 당중앙위원회의 청사에 나붓기는 붉은 당기발에 마음을 얹어보느라면 자신의 심정을 펄펄 휘날리는 붉은 당기폭에 담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절절히 하시던 교시가 들려오는듯싶어 격정을 금치 못하는 우리 인민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붉은 기발과 함께 걸어온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력사입니다. 우리 당기발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가 그대로 비껴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며 굳게 다지신 그 맹세를 어느 하루 한순간도 잊은적 없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들은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기 위한데로 지향되였으며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자주, 자립, 자위로 번영할 불패의 강국건설의 지침으로 되였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창건자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당, 주체의 항로를 따라 선군혁명위업을 향도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 불패의 당으로 누리에 존엄떨칠수 있게 되였다.

세계 당건설력사에는 수많은 당들이 기록되여있고 이름있는 령도자들이 많았지만 이렇듯 웅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가장 철저히 실현한 위인을 아직 기록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오직 탁월하고 선견지명한 예지와 불변의 신념,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실현하실수 있는 거창한 위업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1960년대 중엽 당사업, 군사문제, 경제건설, 문학예술 등 돌보셔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으시였지만 그이께서는 조국과 혁명앞에 지니신 력사적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초인간적인 정열로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으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 선포,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신것과 같은 거대한 사변으로서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마련한 계기로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의 선포에 이어 제시된 전당주체사상화방침에는 또 얼마나 심오한 통찰력과 천재적예지가 빛발치고있는가.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자면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당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위대오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야 한다는 철리를 심장속에 새기시고 전당주체사상화기치를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 당안에서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당건설, 당활동이 진행되게 되였으며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우리 당을 모든 승리와 영광의 향도자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조선로동당기는 눈부신 창조와 기적의 년대들을 부르며 더욱 세차게 휘날렸다.

우리 인민들이 눈시울적시며 부르던 당중앙의 불빛에 대한 노래와 더불어 위대한 1970년대와 1980년대가 참으로 눈부시게 흘러갔다. 20세기 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도, 속도전의 기상으로 이룩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빛나는 승리도,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더욱 강화된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도 우리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1990년대 우리 당과 혁명앞에는 커다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였다. 제국주의앞에 굴복하여 사회주의나라 당들이 자기의 붉은 기발을 내리우는 비극적사태가 련이어 벌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당중앙청사의 붉은 당기발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고 더욱 거세차게 펄럭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천만t의 식량보다 더 귀중한 신념의 기둥, 희망의 표대로 된것은 조선로동당기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를 관가름하던 그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시며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시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료원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여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훌륭한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신 우리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은 당령도사의 갈피에 찬란히 새겨져 빛나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붉은 당기발을 혁명의 기치로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넘고 헤치신 그 무수한 전선길과 강행군길이 있어 이 땅에 끝끝내 승리의 새봄이 찾아오지 않았던가.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넘겨주신 주체의 당기를 변함없이 휘날려오신 우리 장군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들앞에 강성번영의 거대한 재부를 남기시면서도 함박눈 펑펑 쏟아지는 피눈물의 12월에 안고가신것은 한폭의 붉은 당기발이였으니 진정 우리 당의 기폭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넋이 스며있고 순간도 멈춤을 모르는 펄럭임소리에는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이 오늘도 높뛰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은 곧 우리 수령님이시고 장군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인민은 혁명의 어려운 년대, 폭풍우를 다 겪으면서도 우리 당을 그 무엇보다도 더 숭상하고 따라왔다고 하시며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와 더불어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시대의 진군가로 울려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떠나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신념과 넋이 어린 당중앙위원회청사의 붉은 당기는 우리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희망과 승리의 전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 특출한 공적을 세운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장군님앞에 내세워주시듯 당중앙위원회에 불러 당기발날리는 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는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 과학자, 기술자들, 황금해력사의 창조자들,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가고있는 미더운 전투비행사들, 국방과학부문에 특출한 공헌을 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기발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여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의 당기발과 더불어 오늘도 영생하시며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축복을 보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뜻깊은 2월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넋과 숨결이 어린 당기를 혁명의 제일기발로 높이 추켜드시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천만군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주체혁명위업은 빛나게 완성될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주체의 붉은 당기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영원히 휘날리리.

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삶

더욱더 빛을 뿌리는 금별메달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중심에는 공화국영웅메달이 부각되여있다. 거기에 어떤 감동적인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알고있는 사람들은 많지 못할것이다.

대성산혁명렬사릉 개건확장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공사장을 찾으시였다. 그때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에는 해방후에 세상을 떠난 렬사들가운데서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렬사들만 영웅메달을 단것으로 형상되여있었다.

그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실 그들만 영웅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중흡동지 반신상에는 영웅메달이 없는데 그를 어떻게 영웅에만 비길수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제도가 없었다. 아마 있었다면 항일혁명투사들은 다 영웅이 되였을것이다.

혈전만리를 헤치며 싸우던 투사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렬사릉에 안치된 혁명렬사들은 다 영웅이라고 하시며 공화국영웅메달을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에 달아주는것보다 화환진정대중심에 크게 부각해놓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공화국영웅메달을 동으로 잘 부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은정속에 항일혁명렬사들은 비록 생전에 금별메달을 받지 못하였지만 모두가 우리 혁명이 낳은 영웅의 첫세대로 조국과 더불어 영생할수 있게 되였다.

수십년후에 받은 영웅칭호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주인공의 원형인 공화국영웅 안영애에 대하여 떠올리게 된다.

그는 197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영웅이 아니였다. 그가 언제 어떻게 되여 영웅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였던가.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보아주시였다. 공연이 끝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로투사와 함께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언제나 맡은 전투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전우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는 어린 나이에 화선입당까지 하였으며 모범전투원으로 부대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최후의 순간에는 적기의 맹폭격속에 부상을 입으면서도 불붙는 병동에 거듭 뛰여들어 많은 환자들을 업어내오고 숨을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투사와 일군들을 보시며 전쟁시기 안영애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라도 안영애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여야겠다고 하시면서 그는 응당 수령님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공화국영웅으로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조국해방전쟁시기 간호원으로 싸우다 희생된 녀전사 안영애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 정령이 발표되게 되였다.

그날은 주체62(1973)년 10월 19일이였다.

대를 이어 날으는 조국수호의 항로

주체86(1997)년 10월 10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무척 반가와하시며 만나주신 한 녀성군관이 있었다. 그가 바로 온 나라가 아는 하늘의 불사조 길영조영웅의 안해 리은경동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사한 남편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은 영웅의 안해를 대견해하시며 그의 사업과 생활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맡은 일을 잘하라고, 아이들은 당에서 키워줄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군사복무에 충실하라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당부하시였다.

이제는 아들이 다 자라 아버지가 지키던 초소에 섰으며 25살에는 아버지처럼 비행중대장이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길훈동무의 비행모습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길영조영웅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누비던 하늘길을 아들이 날고있소, 대를 이어 날으는 조국수호의 항로요, 잘하오, 정말 잘하오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길훈동무를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사의 삶은 이렇게 영생하는것이며 우리 혁명의 대는 이렇게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도서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를 펼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게 되는 뜻깊은 2월, 도서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를 펼친 우리에게 못 잊을 회억이 물결쳐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생동하게 반영되여있는 도서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는 위대한 어버이를 만나뵈온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집필한 방대한 회상실기집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의 2월이여서인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에 대한 회상실기들이 먼저 안겨온다. 많은 회상자들이 쓴 실기들이 전하여주는 장장 수십성상 우리 당을 명실공히 어버이수령님의 당으로, 선군혁명위업을 향도하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

도서 제4권의 회상실기 《당일군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져야 한다시며》는 수십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당일군들에게 참다운 당사업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명깊게 수록하였다.

이곳 당위원회의 사업실태를 료해하시며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은 어머니당인것만큼 당일군들은 마땅히 당원들의 어머니가 되여 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날의 이야기는 오늘도 인민의 충복으로서 당일군들이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일해나가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말해주고있다.

도서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에 수록된 다음의 제목들만 보아도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당일군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이끌어주시여》, 《친부모의 사랑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은정》,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품성입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의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던 나날에》, 《한사람이 백, 천, 만사람을》…

우리 당을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끄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혁명의 강위력한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커다란 공적을 이 나라의 인민들이 소박한 필치로 뜨거운 진정을 담아 도서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에 써넣었다.

탁월한 령도자를 높이 모실 때 당의 존재도, 그 위업의 승리적전진도 담보된다는것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한없이 위대하면서도 어찌 보면 더없이 소박한 생활의 세부들을 통하여 절감하였고 그럴수록 후손만대에 그 력사적사실들을 전하고싶은 열망에 불탔었다.

인민이 체험하고 인민자신이 직접 자기 수령을 칭송하여 쓴 회상실기처럼 진실하고 뜨거우며 무궁한 견인력을 가지는 도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도서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는 력사의 증견자의 자격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사를 어떻게 수놓아왔는가를 세세년년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36년전의 잊지 못할 력사적화폭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함께 모시고 진행한 뜻깊은 당대회인것으로 하여 우리 당력사에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영광의 대회로 기록되여있다.

36년전의 이 격동적인 사변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존함을 당보에 모신것으로 하여 당제6차대회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국가, 군대를 이끄시면서도 한평생 혁명전사로서 수령님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고매한 풍모와 숭고한 도덕의리는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이의 존함을 모시고 글을 쓰며 영상사진문헌을 신문에 정중히 모시는것은 당보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의 절절한 소원이였다.

《로동신문》은 말그대로 당의 기관지인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걸출한 령도자의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것은 응당한 본분이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이 문제는 해결될수 없었다.

일찍부터 여러 부문의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와 고매한 풍모에 매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칭송하였건만 그이의 한없는 겸허성으로 하여 글들에 존함마저 모시지 못하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가장 정중하게, 가장 높이 모시는것을 최고의 사명과 첫째가는 원칙으로 여기시고 당보가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당보에 나가는 글들에 자신의 존함을 모시는데 대하여서는 엄하게 금하시였다.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소원은 당제6차대회와 함께 드디여 이루어지게 되였다.

주체69(1980)년 10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관한 보도가 취급된 10월 11일부 당보에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과 장군님의 존함이 정중히 편집되여나가게 되였다.

이날의 당보가 나간 후 감격과 환희는 온 나라를 아니 온 세계를 진감시켰다.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격정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왔다. 세계의 여러 나라 신문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당대회소식을 광범히 보도하였다.

진정 룡남산마루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을 누리에 떨치실 굳은 맹세를 다지신 잊지 못할 그날이며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의 사연 그리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며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던 하많은 날과 날들의 가슴벅찬 사연들이 다 담겨져있는 1980년 10월 11일부 당보였다.

하기에 당시의 격동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씻을념을 못하던 대회참가자들의 모습이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한없이 겸허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자신과 관련한 글들에 대하여 당보에 내는것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보도가 처음으로 신문에 편집된것도 이때로부터 여덟달만이였고 그것도 극히 소박한것이였다.

하지만 해방후 열혈시인이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이라고 자기의 격정을 터치였듯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열화같은 칭송과 흠모는 막을수 없는 대하마냥 더욱 세차게 굽이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만수대언덕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 영원하리

당을 따라 영원히 승리만을 떨치리

노래 《우리의 신념》을 들으며

당 제7차대회로 향한 총공격전이 벌어지고있는 전투장마다에 새로 나온 노래 《우리의 신념》이 울려퍼지고있다.

당의 품속에서 억세게 성장한 청년맹장들이 북방의 눈보라속에서 벌리는 격전장에서도,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가 나래치는 철의 기지들과 세멘트생산기지에서도 신념의 노래가 진격의 나팔소리로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념과 의리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그것으로 하여 빛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이다.》

우리에게는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벼려여주는 명곡들이 많다. 더우기 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인 당대회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인민은 일편단심 당을 받들 자기들의 충정과 신념을 반영한 좋은 명곡들을 지어부르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당대회를 뜻깊게 빛내이군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당대회를 빛내일 혁명적열의를 안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갈 천만군민의 충정의 마음은 뜻깊은 올해의 1월에 《우리의 신념》이라는 또 한편의 훌륭한 노래를 낳게 하였다.

이 노래는 력사적인 당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 한목소리로 울려나오고있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훌륭히 음악화한 우리 시대의 명곡이다.

백두에서 시작된 길 세대를 이으며
설한풍과 불비속에서 지켜온 이 신념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항일혁명선렬들과 전화의 용사들이 걸어온 길을 꿋꿋이 이어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라는 특대사변과 사회주의문명국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킨 천만군민에게는 목숨보다 귀중한것이 있다.

그것은 백두의 밀림에서 간직되고 전화의 불길속에서 억척으로 벼린 혁명적신념이다.

혁명적신념을 백두산악처럼 간직하지 못하였다면 이 모든 승리와 기적은 이룩되지 못하였을것이며 당 제7차대회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듯 보무당당하지 못하리라.

당 제6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의 앞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였다. 노래 《우리의 신념》에 있듯이 시련의 천만산악 헤쳐넘으며 력사의 돌풍을 뚫고온것이 우리의 행군길이다.

남들같으면 열백번을 주저앉았을 길을 장장 수십년세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신념으로 걸었으며 그 신념을 강철기둥처럼 세워나갔다.

원쑤들은 무서워하고있다. 억대의 자원을 가지고도 실현하지 못하는 승리와 영광,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쟁취하고 실현하는 우리의 혁명적신념을.

위대한 수령님들 따라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를 헤쳐왔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은 혁명가의 심장이다.

혁명적신념을 심장처럼 지니였기에 당대회에로 향한 행군길에 시련과 난관은 겹쌓여도 우리는 격정의 환호성이 터져오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장을 그려보고있는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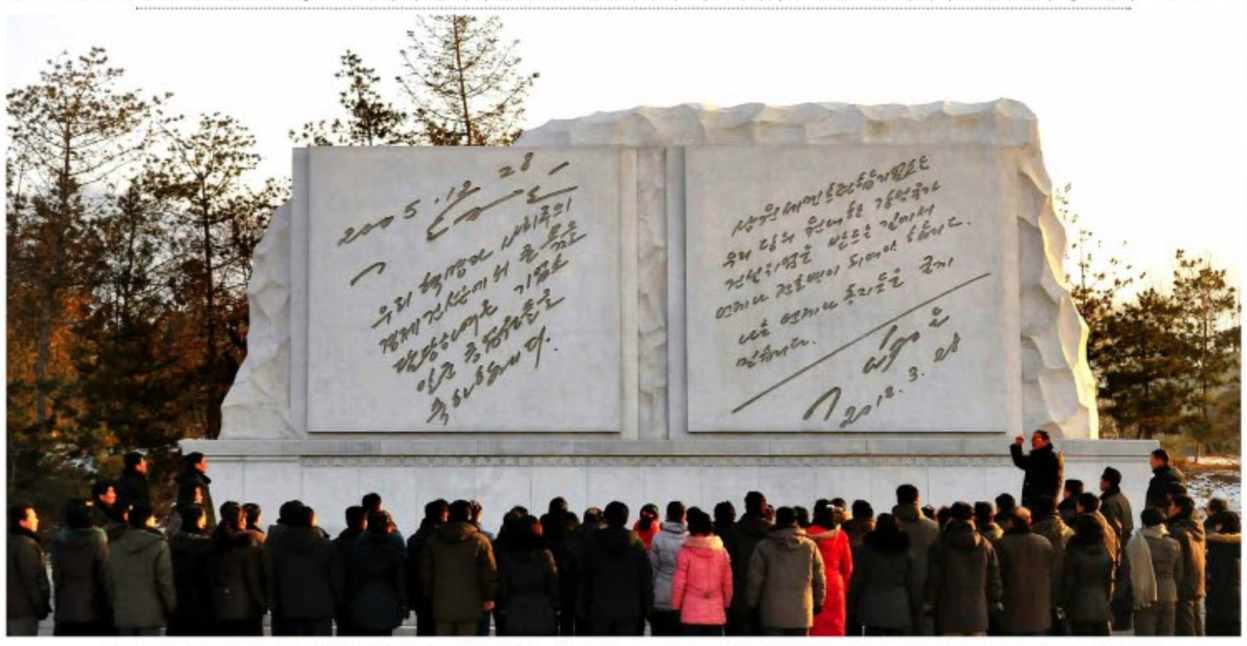
승리와 영광의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터칠 그날을 안고 살기에 혹한속에서 청춘언제는 키를 솟구고 창조와 건설의 동음은 봄우뢰마냥 강산을 진감하고있는것이다.

혁명적신념을 지닌 천만군민처럼 정의롭고 강의한 존재는 없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벼려여주는 자양분을 주고 정을 주시는 위대한 태양이 계신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여 우리의 심장은 주체의 붉은 피로 더 붉게, 더 힘차게 고동치고있다.

천만군민이 당중앙과 세상에 없는 명줄로 이어졌기에 내 나라에는 수천개의 핵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천겹만겹의 결사옹위의 성벽이 솟아나고 세상을 놀래우게 될 무궁무진한 힘이 분출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심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과 정으로 다져주시는 혁명적신념을 간직하였기에 천만군민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놓을것이며 승리의 5월에 경축의 축포를 터쳐올릴것이다.

차 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세멘트증산의 동음 높이 울려갈 결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목숨바쳐 지키는 당결정

돌격전의 제1번수

1월계획을 결속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던 어느날이였다. 2.8직동청년탄광 3갱채탄4중대 채탄공들이 일하는 막장의 어느 한 구간이 뜻하지 않게 붕락되였다. 그로 하여 막장장비들이 탄속에 묻히고 수십m구간에 석탄이 쌓였다.

그들과 함께 막장에서 일하던 분초급당비서의 가슴은 무너지는것만 같았다. 이제 며칠만 석탄을 캐내면 월전투목표를 수행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였다.

시간이 갈수록 막장의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원상대로 복구하자면 빨라서 1주일은 걸려야 했다.

그렇게 되면 당결정에 조아박은 날자까지 월계획을 수행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뚫고나가야 하는가.

두길중에 어느 한길을 택해야 했다.

이때 그의 가슴을 친것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붕락구간을 극복하고 당결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였다. 하기에 그는 사람들이 미처 말릴새도 없이 무릎까지 빠지는 석탄무지속으로 남먼저 뛰여들었다. 그의 이런 희생성에 고무된 당원들이 떨쳐나섰다. 1주일이 걸린다던 붕락구간은 3일만에 극복되였고 이들은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야말았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돌격전의 제1번수가 된 당일군의 헌신적인 모습은 당원들에게 당결정은 목숨바쳐 지켜야 한다는것을 뼈속깊이 새겨주었다.

그렇다. 돌격전의 제1번수, 바로 이것이 당일군이 서야 할 위치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손영희

전화의 용사들처럼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되던 1월의 어느날 밤이였다.

어느 한 수원지의 기본송수관이 터져 주민들의 물공급이 중단될 긴급정황이 조성되였다.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 당위원회에서는 즉시 현장에서 긴급협의회를 열었다.

토의문제는 단 한가지, 당결정을 지켜 밤중으로 무조건 원상복구하는것이였다.

《전화의 용사들처럼 당결정을 목숨으로 지키자!》

당위원회책임일군의 호소가 모임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전화의 용사!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의 그 나날 인민군용사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떠올랐다.

한몸이 그대로 육탄, 방패가 되여 당결정을 목숨으로 지켜싸운 화선용사들,

책임일군의 뒤를 따라 일군들과 당원들이 선봉에 섰다. 뿜어져나오는 물줄기로 하여 온몸이 그대로 얼음투성이가 되였지만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물러설수가 없었다.

이 길이 바로 당앞에 다진 당원의 맹세를 지키는 길이였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이였기에.

새벽 1시, 마침내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송수관보수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모두의 얼굴마다에는 당결정을 지켜냈다는 긍지가 한껏 어려있었다.

승리한 고지의 화선용사들의 모습그대로였다.

윤명철

총화장소를 옮긴 사연

안악군 오국리당위원회에서 거름확보전투를 빠른 시일안에 다그쳐 끝낼것을 당결정에 조아박았던 때의 일이다. 작업반들의 거름운반실적은 씨원치 못했다. 부족되는 로력과 운반수단, 불리한 작업조건들…

그러한 때 리당비서는 관리위원장 황윤남동무에게 하루 사업총화를 농장의 전망대에서 진행할것을 제기하였다. 이례적인 일이였다.

(무슨 일일가?)

일군들은 누구나 이런 의문을 안고 전망대에 올랐다.

그날 총화에 앞서 리당비서가 한 말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동무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주체90(2001)년 4월 이 자리에서 토지정리된 어러리벌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

일군들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지난해에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의 가슴을 허비였던것이다.

그날 저녁부터 전투장에서는 불이 일었다. 일군들은 홰불을 추켜들고 남먼저 전투장에 뛰여들어 농장원들을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한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백t의 질좋은 거름을 확보하고야말았다.

당결정을 지켜낸 그날 일군들은 또다시 전망대에 올랐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말 불타는 맹세가 세차게 끓어번졌다.

본사기자 채인철

당중앙과 우리 당세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았을 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생산과 당세포 당원들의 마음은 남달리 뜨거웠다. 기사장, 생산부기사장, 지령원들을 비롯하여 생산지휘를 담당한 당원들이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동지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전례없는 세멘트생산성과로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의 구절구절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당중앙과 우리 당세포,

되새길수록 생각이 깊어졌다.

몸소 명예지배인이 되시여 부강조국건설의 작전도우에 기업소의 생산일보를 함께 놓으시고 언제나 세멘트생산자들과 심장의 대화를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 나는 세멘트를 해결해달라는 제기를 받군 하면 먼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생각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늘같은 그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려고 날과 달을 위훈으로 수놓아온 그들이였다. 인민경제계획외에 많은 세멘트생산과제가 제기되였을 때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사람들도, 뜻밖의 사고위험을 생명을 내대고 제때에 퇴치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한 사람들도 생산과 당세포의 당원들이였다.

오늘 온 나라를 격동시킨 상원의 기적을 어찌 그들의 위훈이라고만 하랴. 당중앙의 사상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할 결사의 맹세를 다지며 산악같이 일떠선 명당지구 모든 당세포 당원들의 불타는 심장이 안아올린것이다.

당중앙과 심장의 피줄을 잇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충성의 당세포들이 이 땅 어디에서나 벌처럼 빛을 뿌리고있다. 직동에 가면 수천척지하막장에서 평양의 불빛을 지켜가는 미더운 당원들을 만날수 있고 연백벌에 가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굳건히 수호해가는 충실한 당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수소탄의 폭음을 통쾌하게 터뜨린 당원들의 가슴속에도 당기발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가 소중히 자리잡고있고 망망대해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는 당원들의 눈길이 선참으로 가닿는 곳도 맑고 푸른 평양의 하늘가이다.

해발높이가 1500m나 되는 산세험한 설림령,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험한 산속에도 통나무생산으로 당을 받들어가는 당세포들이 있다. 몸은 비록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지난 수십년간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고 설림령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한 당원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순결한것인가.

당세포들의 전투력을 떠나 조선로동당의 높은 권위와 존엄, 불패의 위력을 생각할수 없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이것은 백두밀림에서 혁명의 닻을 올렸던 건설동지사의 첫세대 당원들이 물려준 유산이고 포연에 절은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불타는 락동강을 건느던 전화의 당원들이 넘겨준 고귀한 정신이다.

전당의 당세포들이 혁명의 수뇌부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수령옹위의 전위대, 일심단결의 보루가 될 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정신을 이어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에서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그 앞장에 직장의 당원들이 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무한히 충실했던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마음안고 이들은 사연깊은 그날의 민주선전실을 찾았다.

전화의 날 주철직장 당세포총회를 지도하여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가슴뜨겁게 안겨오고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발휘하였던 그 정신으로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주체89(2000)년 1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락원의 10명 당원의 한사람이였던 류기동동무의 아들인 신포향주철직장 직장장 류재명동무를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세대들처럼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해야 한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후 련합기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물생산공정현대화의 휘황한 앞길을 펼쳐주시였다.

주체94(2005)년 12월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현대화된 신포향주철직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보위하여온 자랑찬 투쟁전통을 계속 옹호고수하고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직장의 로동자들은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과 대상설비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해에도 이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중주파유도로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쇠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직장의 당원들은 결의해나섰다.

오늘의 보람찬 총진군에서 당원들이 인민경제계획수행과 대상설비생산과제수행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당원들은 상반년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끝낼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그 전렬에 주형1작업반 신포향당세포의 당원들이 섰다.

작업반장 김성철, 당세포비서 김정철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황해남도물길건설장에 보내줄 대형양수기제작에 필요한 덩지큰 주물품들을 기한전에 무조건 생산보장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이들만이 아니다. 직장의 모든 당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나게 장식함으로써 혁명의 전위투사, 투쟁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당원들의 힘찬 보폭에 직장의 전체 로동자들이 승리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발걸음을 따라세우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

—대안전기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수도려객운수국돌격대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만경대공작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을 쌀로써 결사옹위하는 농민영웅이 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양형섭동지, 곽범기동지와 리철만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농근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 농근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곽범기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총돌격, 총매진하고있는 시기에 창립 일흔돐을 맞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 농근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축하문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당과 농업근로자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농민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1월 31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하여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언제나 조선농업근로자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농근맹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으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당중앙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근맹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창립후 지난 70년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되여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

농업근로자동맹에서는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연한 조직생활체계와 혁명적규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각급 농근맹조직들을 선군혁명투사들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동맹에서는 사상교양단체의 임무에 맞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과 강연, 해설강의를 비롯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예술선전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동맹원들을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지켜선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쌀로써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여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농업근로자동맹에서는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농촌들에 선진농업과학기술통보자료를 정상적으로 내려보내주어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농근맹조직들에서는 농촌의 실정에 맞게 군중문화예술활동과 씨름, 널뛰기를 비롯한 민족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협동벌에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도록 하였다.

동맹조직에서는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선군시대 본보기협동농장들사이와 도들사이, 다수확시, 군들, 협동농장들사이의 경쟁, 과수부문들사이와 축산기지들사이의 경쟁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쟁을 널리 조직진행하여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기여하였다.

농근맹조직들에서는 령도업적단위들을 전형단위로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과 모범초급단체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최근년간 수많은 단위들이 모범단위칭호를 쟁취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 농근맹원들이 동맹조직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70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감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농근맹의 70년력사는 혁명적농민조직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적농민동맹조직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원불멸할 혁명업적으로 빛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근로자동맹을 무어주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가장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테제를 투쟁강령으로 틀어쥐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근로자동맹은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인 대중정치조직,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힘있는 전투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고 말하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의 70년력사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업적이 빛나게 수놓아져있다고 하면서 그는 어머님께서 해방후 우리 농민들이 땅의 주인, 새 조국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식량증산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농업근로자동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전동맹을 우리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주시였으며 농업근로자들을 쌀로써 당을 받들고 조국을 빛내이는 선군시대 애국농민들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며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농업근로자들의 더없는 긍지이고 행복이며 크나큰 영광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근맹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오늘의 대고조진군속도는 대중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이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 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보고자는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동맹조직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농근맹조직들이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농근맹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농촌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분발함으로써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선군시대 본보기협동농장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고 고향과 마을들을 과일향기 넘쳐나는 아름다운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각급 농근맹조직들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틀어쥐고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집단주의교양에 힘을 넣어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온 나라 농촌들에 차넘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농근맹일군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언제나 농근맹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그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총궐기, 총발동시키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동맹원들을 이끌어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무비의 자강력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림으로써 당 제7차대회정신을 보위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농근맹사업성과로 맞이하며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활짝 피워가고있다.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70돐 경축공연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70돐경축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와 예술소조원들의 공연 《원수님따라 이 세상 끝까지》가 1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양형섭동지, 곽범기동지, 리철만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농근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합창 《발갈이노래》, 시이야기 《백두산절세위인들과 농업근로자동맹》, 녀성독창과 방창 《포전길 걸을 때면》, 녀성5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 막간극 《경쟁열풍》, 선동시극 《잊지 말자 그날의 소방울소리》, 녀성2중창 《오세요 나의 포전으로》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고 한평생 농장길, 포전길을 걷고 걸으시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사회주의협동벌 그 어디에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쉬임없이 이어가신 절세위인들의 헌신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고 농업근로자들에게 베푸신 친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어 관람자들의 가슴에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정이 가득차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며 농업근로자동맹을 대중적정치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전변의 새력사가 펼쳐지고있음을 보여주는 혼성중창 《흥하는 내 나라》, 노래묶음 《분조농사 꽃이 피네》, 《철령아래 사과바다》 등은 공연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관람자들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사랑하시고 정을 기울여 가꿔주신 사회주의대지우에 세세년년 펼쳐질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그려보며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었다.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쌀로써 보답할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불같은 열의가 녀성독창 《자나깨나 원수님생각》, 남성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에서 세차게 분출되였다.

시와 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으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증산의 대승전고를 높이 울려갈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전투적기백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과학연구활동으로 국산화의 열풍을 일으키며

실험실습설비제작을 통해 얻은 실리

평양기계종합대학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로 지금 있는 교육설비들과 과학연구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실험실습설비와 기재들을 개발하며 교과서와 참고서적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평양기계종합대학에 가보면 류달리 눈길을 끄는 실험실습설비들이 있다.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가공중심반과 소형CNC후라이스반, 3차원인쇄기 등이다.

CNC공작기계중에서도 성능이 높은것으로 알려져있는 가공중심반도 그렇지만 어떤 형태의 물체도 단번에 만들어낼수 있는 3차원인쇄기는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다면 이 실험실습설비들은 교육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있는가.

이 설비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주고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를 잘 알도록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과 대비조차 할수 없는것이 있다.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교원, 연구사들에게는 결심만 하면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낼수 있게 해주는 자강력을 더욱 분출시켜주고 학생들에게는 최첨단돌파의 크나큰 리상과 포부를 안겨준다는것이다.

대학에서 실험실습설비들의 현대화문제를 제기한것은 오래전부터였다. 누구나 즐겨부르는 《돌파하라 최첨단을》의 노래와 함께 온 나라에 CNC화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데 대학의 실험실습교육은 뒤떨어진 설비들과 함께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있었다.

그대로 나가다가는 학생들에게 발전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쓸모없는 지식을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만 하였다.

다른 학부들에서도 그러하지만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의 구조와 작용원리, 특성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기계생산공학부에 있어서 이 문제는 더욱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윤철호, 로경남동무들을 비롯한 기계생산공학강좌의 교육자들이 기치를 들고 떨쳐나섰다.

초행길을 헤쳐나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다.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으며 개발력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것이다. 그러나 물러설수 없었다. 어렵다고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백걸음 떠진다는 교육자의 깨끗한 량심은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나갈것만을 요구하였다. 실패에 또 실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어언 수십번…

드디여 가공중심반의 첫 동음이 온 교정에 울려퍼졌다. 프로그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각종 공구들을 교체해가며 소재를 가공하는 새 설비를 바라보던 그 시각 대학일군들과 교육자들의 가슴속에 고패친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누구나 최첨단을 돌파할수 있다는 신심이였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엇이나 만들어낼수 있다는 확신이였다.

기계생산공학부의 서일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투쟁방식과 새 설비제작과정에 얻은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귀중한 밑천으로 하여 온 대학이 실험실습설비현대화와 제작사업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섰다. 이것은 그대로 과학연구사업성과로 이어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성과로 이어졌다.

자체로 제작한 실험실습설비의 리용과정은 또한 학생들에게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직접 CNC설비들을 다루어보는 과정에 학생들은 결코 첨단이 멀리에 있지 않음을 확신하며 배우고 또 배워 래일의 최첨단돌파자로 자라나겠다는 꿈과 리상을 키우고있다. 조종장치도 쉽게 료해할수 있고 프로그람에 대한 파악도 짧은 시간에 할수 있으며 여러가지 가공특성까지 직접 따져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배운 지식을 충분히 다지고 마음껏 활용할수 있다는것 역시 학생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물론 현장에서의 생산실습과정에도 학생들이 직접 설비를 다루어볼수 있는 기회를 얻는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설비들이 학생들의 실험실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획된 제품생산을 위해 존재하는것으로 하여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축적하기 곤난하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최첨단실험실습설비제작사업이야말로 하나를 해결하여 동시에 많은것을 얻을수 있게 해주는 실리있는 사업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그 많은 리익가운데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넘어갈것은 인민경제의 국산화를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해주는 자강력을 더욱 다져준다는것이다.

자기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 자강력을 더욱 분출시켜주는 최첨단실험실습설비제작에 힘을 넣고있는 대학의 경험은 모든 교육단위들에서 한시바삐 본받아야 할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

본사기자 한경철

새 기술제품개발에서 비약을 안아오기까지

‖ 평성석탄공업대학 일군들의 사업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 새 기술제품개발사업을 시작한것은 불과 몇년전부터였다. 멀리 앞서나가고있는 다른 단위들보다 훌륭한 제품들을 내놓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때 대학의 일군들이 잘한것은 인재선발을 책임적으로 하고 도달목표를 과학적으로 세운것이였다. 그들은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첨단기술제품개발연구실을 내오는 한편 그들의 연구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었다.

수시로 찾아와 토론도 해주고 힘과 고무를 안겨주는 책임일군들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은 연구집단은 콤퓨터를 결합한 2차원작도기를 개발완성하여 전국에 200여대를 도입하는것으로써 첫 선을 보이였다.

대학의 일군들은 연구집단이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도록 하기 위한 다음단계의 작전에로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갱안비저항CT탐사기였다. 탐사선행에서 기본인 시추탐사기의 수입자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석탄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는 실태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채굴조건에 맞는 갱안비저항CT탐사기개발에 대담하게 뛰여들게 하였다. 어려운 연구과제였다. 세계적으로도 지표CT탐사기술에서는 일정한 연구성과들이 있었지만 갱안CT탐사에 대한 연구도입사업에서는 크게 전진이 없었다.

대학당조직에서는 이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대학이 점령해야 할 첫째가는 목표로 정하고 당결정으로 채택하였으며 연구집단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리상재, 전을명, 김학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연구와 제작,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짧은 기간에 갱안비저항CT탐사기개발에서 성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이들이 만든 갱안비저항CT탐사기는 많은 로력과 자금, 자재와 시간을 절약할뿐만 아니라 정확도가 매우 높고 경량화되였으며 사용방법이 간단한것으로 하여 도입된 탄광들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얼마전에는 석탄층을 2차원, 3차원적으로 볼수 있게 첨단수준의 프로그람을 새로 개발하였다.

대학에서는 지난해에 새 기술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해 첨단기술제품개발연구실을 첨단기술제품개발연구소로 확장하고 수십명의 인재들로 강력한 연구집단을 꾸려주었다. 채명학, 심광철, 김수성동무를 비롯한 대학과 첨단기술제품개발연구소의 일군들은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과학연구사업방향을 제시해주고 교원, 연구사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면서 새 기술제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연구집단을 국가적인 과학기술발표회, 전시회들에 빠짐없이 참가시켜 안목을 넓혀주고있는것, 현장책임일군들과 련계를 맺어주어 빨리 도입성과가 나타나도록 밀어주고있는것 등 일군들의 훌륭한 사업기풍 역시 새 기술제품개발에서 비약을 안아오게 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막장에서 압축공기를 쓰지 않고 전기로 착암을 할수 있는 유연축전기착암기개발, 10분이면 발파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에 착수할수 있게 하는 희토류계발파가스중화제개발, 로동보호사업에 이바지하는 원격가스농도측정기개발…

짧은 기간에 대학에서 거둔 과학연구성과들은 참으로 놀랄만 한것이였다. 우리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당정책관철을 과학기술로 추동해갈 드높은 열의로 심장을 불태울 때 온갖 난관을 박차고 비약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이들은 이렇게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본사기자 김명훈

집단의 힘과 성공의 열매

황북종합대학에서

최근 황북종합대학에서 국산화의 열풍속에 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먼적외선에 의한 파고무탈류공정과 갱안에서 쓰이는 가스정화장치, 저품위미광에서 유가광물을 회수하는 액면—혼화부선기, 세멘트경화제 등은 우리의 것이라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는 연구성과들이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물리탐사기구도 이제는 대학에서 설계제작하여 현실에 도입하고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다 대중의 힘과 지혜가 합쳐져 이룩된 귀중한 열매들이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지만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집단의 힘은 매우 위력하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것이 어떻게 은을 내게 하고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기본방도의 하나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에서는 지난 기간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정치사업,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고 교육사업과 함께 교원, 연구사들이 현실에 나가 진행하는 과학연구활동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어주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대학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과학심의사업을 집단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시키는 과정으로 전환시킨것이다. 과학심의과정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대학에서는 강좌, 학부심의를 거쳐 과학연구부에 제출된 자질향상 및 과학연구사업계획을 놓고 대학적인 과학심의를 심도있게 조직하고있다. 책임일군들도 참가한 가운데 진별로 진행되는 과학심의에서는 학술적인 론의를 심화시켜 제안들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모아 옳은 연구방향을 세워주고 필요한 연구력량을 다시 합리적으로 편성해주기도 한다.

이 방법이 왜 좋은가.

한마디로 과학심의가 폭넓은 토론과정으로 된데 있다.

서로의 방조밑에 교원, 연구사들은 연구목적을 보다 뚜렷이 하고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을 택할수 있다. 실례로 교원, 연구사들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자면 어디에서 어떻게 실험을 진행하며 필요한 첨가제와 시약, 설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종합적인 의견을 받게 된다. 이것은 강좌나 학부 또는 교원, 연구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사업의 제한성을 극복할수 있게 해주었으며 늘 성공에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것이 대학의 과학연구사업에서 가장 주되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대학의 과학연구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년간에 2~3차씩 진행하는 대학적인 과학기술제품전시회이다. 여기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이룩한 연구결과물들을 전시한다.

이 기회를 통하여 교원, 연구사들은 물론 학생들도 자기 견해를 발표하게 한다. 제기된 의견들을 강좌, 학부별로 종합하여 다시 대학에 제출한다.

교원, 연구사들은 대중의 의견을 통해서 연구결과들을 수정갱신하고 새로운 착상도 하게 된다. 최정만, 한명식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이 교원, 연구사들의 연구조건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우고있는것도 연구성과를 안아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학이 거둔 성과들은 다 당위원회책임일군을 비롯한 대학일군들의 지지와 방조속에 마련된것들이다.

연구사업을 하면서 교원, 연구사들은 집단의 힘을 페부로 느끼였다. 대중의 힘과 지혜는 연구사업을 최단기간내에 성공에로 이끌어주는 원천이고 밑거름이였다.

수입에 의존하던 금색금속분말과 발열체개발 등 올해 대학에서 국산화할것을 목표로 한 연구사업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이 이룩한 경험을 적극 살려 대중의 힘을 총폭발시킨다면 당 제7차대회를 맞는 뜻깊은 올해를 빛나는 성과로 떳떳이 맞이할수 있다는것이 지금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주의를 구현하여 연구과제들을 빠른 속도로 밀고나가는 대학의 올해 연구사업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공로혁

일군들과 로동자들 교원, 연구사들과 평양방직기계공장의 합쳐가고있는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생산공정의 국산화를 위해 집체적지혜를 본사기자 찍음

한없는 그리움의 세계가 펼친 2월의 뜨거운 화폭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 삼지연군에서 성황리에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이 삼지연군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이번 축전에는 백두의 하얀 눈과 수정처럼 맑은 얼음으로 만든 45종에 1000여점의 얼음조각품들이 전시되였다.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려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창작한 얼음조각품들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천만군민의 불같은 마음이 반영되여있다.

축전장에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앞에 향기그윽한 꽃다발, 꽃송이를 삼가 드리면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답사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두볼을 적신다. 축전장을 찾는 이 고장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도 백두산은 나의 고향이라고 하시면서 서리꽃피는 계절에 꼭 한번 다시 오시겠다고 뜻깊은 약속을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나고있다.

2월의 정서를 한껏 더해주는 황홀한 얼음조각품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그리움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얼음조각품들의 독특한 사상예술적형상은 장엄한 백두밀림과 어울려 광명성절을 앞둔 여기 삼지연군에 황홀경을 펼쳐놓고있다.

대형얼음조각 《축원의 마음》은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불러온 백두산밀영고향집과 정일봉, 서리꽃만발한 백두밀림을 방불하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런가하면 대형얼음조각 《백두산혁명강군》에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무장장비들을 실감있게 형상하여 참관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키우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백두산혁명강군이 있는 한 우리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하게 느끼게 한다.

락원의 강 대동강물결우에 인민의 행복을 담아싣고 두둥실 떠있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배안의 시설들까지 생동하게 펼쳐보이는 대형얼음조각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참관자들은 탄성을 터치고있다.

얼음조각 《백두산호랑이》는 투명한 얼음에 조명을 조화롭게 하여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여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를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겠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기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축전장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가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고결한 충정이 안아온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형상한 얼음조각품들도 있다. 그리고 눈과 얼음으로 재치있고 정교하게 형상한 눈동굴, 얼음수정다리, 대형얼음꽃병을 비롯한 많은 얼음조각품들이 이채롭게 전시되여있다.

평범한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인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려단의 전투원들이 창작한 얼음조각품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그들의 불같은 충정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감상록에 남긴 글들은 얼음조각축전이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얼마나 성대히 진행되고있는가를 말해주고있다. 삼지연군 읍에서 사는 한 녀성은 얼음조각축전이 하도 소문나 여러 지방에서 살고있는 아들딸들도 광명성절을 앞두고는 여기로 찾아온다, 자식들과 함께 얼음조각축전장을 돌아보니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렁이는 마음 누를 길이 없다, 얼음조각들에 우리 인민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내무군군인들을 업어주고싶다고 썼다. 외교부문에서 일하는 한 일군은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얼음조각축전장들에 많이 가보았지만 우리의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과 비교할 정도가 못된다, 사상적내용에 있어서나 얼음조각품들의 예술적형상에 있어서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은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격정을 터놓았다. 한 외국인은 아름답고 우아한 얼음조각들을 그대로 옮겨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황홀한 무지개도 계속 쳐다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 펼쳐진 얼음조각들은 보면 볼수록 또 보고싶고 너무나 황홀하여 발걸음을 뗄수가 없다는 글을 남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는 축전장은 매일 수만명의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은 백두산의 흰눈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충정을 그대로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 심장에 잇고 사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은 계속될것이다.

글 특파기자 전철주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원군미풍

초소에 선 자식들앞에 떳떳하게

청진신발공장 후방가족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회가 없이 떳떳하게 살고 부끄러움이 없이 아름답게 사는것이 우리 시대의 참된 삶입니다.》

청진신발공장에는 자랑거리가 많다.

당에서 준 과업을 제기일내에 수행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자랑,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작업반이 늘어나는 자랑, 공장을 훌륭하게 개건하고 공원을 멋들어지게 꾸린 자랑, 신발의 종류를 늘인 자랑…

그가운데서도 인민군대 후방가족들에 대한 공장종업원들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공장에는 수십년동안 기대를 떠나지 않고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로력혁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중 대다수가 인민군대후방가족들입니다.》

지배인 리광해동무의 말이다. 제화종합작업반의 1작업반 반장 김명월동무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후방가족이며 30여년동안 공장에서 일해온 오랜 기능공인 그는 작업반원들을 이끌어 언제나 맡겨진 과업을 제기일에 수행하였으며 작업반을 앞선 단위로 꾸리였다.

로력혁신자, 실력있는 초급일군으로 자랑많은 사출종합작업반 반장 김명희동무도 딸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후방가족이다. 그는 공장의 기술개건에 이바지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으며 작업반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었다.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공장에는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한일터에서 일해오는 제화종합작업반 반장 최명화동무, 30여년동안 재단공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하여 해마다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한 로력혁신자 김금란동무를 비롯하여 자기 맡은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이 많다.

조국보위초소에 선 자식들앞에 떳떳하게!

이것은 후방가족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하나같은 마음이다.

계절과 용도에 따라 신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맵시있으며 가볍고 튼튼한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이 벌어질 때였다.

그 앞장에도 후방가족들이 섰다. 김명희동무를 비롯한 사출종합작업반의 후방가족들은 짬시간을 리용하여 과학기술을 터득하였으며 3대혁명소조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사출기에 원료이송장치를 새로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2배로 끌어올리였다.

원군사업에서도 후방가족들은 늘 앞장에 서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그러한 후방가족들을 내세워주고 로력혁신자의 영예를 계속 떨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자식들이 복무하는 부대에서 감사편지가 올 때마다 축하모임도 의의있게 조직하고있다.

그리고 후방가족들이 혁신적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그 소식을 편지에 담아 초소의 자식들에게 보내주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총대로 받드는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도록 하고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우고 강성국가건설에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런 후방가족들을 공장의 종업원들이 어찌 존경하며 따르지 않겠는가.

특파기자 리은남

정다운 그 부름—우리 리발사

해주시편의봉사관리소 로동자 안정옥녀성과 그의 딸 김춘옥동무

양력설명절을 며칠 앞둔 날 저녁이였다. 명절전야의 흐뭇한 정서가 흐르는 거리를 따라 흘러가는 시민들속에는 해주시편의봉사관리소 해청리발관 리발사인 안정옥녀성과 그의 딸 김춘옥동무도 있었다.

딸의 가슴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으로 하여 한껏 부풀어있었다. 40년가까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리발사로 일해온 어머니가 키워낸 리발사들만도 수십명이 되였다. 또 하루 이동봉사까지 하고 퇴근길에 오른 이들의 가슴은 더없는 행복감에 젖어있었다.

안정옥녀성의 귀전에 영예군인이 하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리발사어머닌 꼭 우리 어머니같아요.》

영예군인이 꼭 그러쥐였던 손, 안정옥녀성의 눈앞에는 불현듯 서른아홉해전의 일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의 삶의 가치와 보람은 그가 한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

안정옥녀성이 중학교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근엄한 표정을 지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뭐라구? 리발사가 어쨌다구? 너 다시 말해봐라.》

늘 자기 편역을 들어주던 영예군인인 아버지도 이때만은 목목부답이였다.

안정옥녀성은 너무 서러워 뚤랑뚤랑 눈물을 떨구었다.

《그 고운 손에 리발기가 어울리지 않는다구? 그래 그 손이 너만을 위해 필요한것인줄 알았니?》

그런 걸음은 아버지의 전우만이 아닌 시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로도 이어졌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당부하군 했다.

《휴식날 너의 일과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 이동봉사를 해주는것이다. 의리가 있어 사람이다.》

그렇게 다심하고 살뜰하던 어머니가 왜 그처럼 노여워하는지 안정옥녀성은 다는 알수 없었다.

졸업후 그는 어머니의 뜻대로 리발사가 되였다.

(두고보자. 어머니가 오늘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나.)

앵돌아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워낙 손끝이 여물고 이악한 그의 기능은 눈에 뜨이게 높아졌다.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어머니였다. 리발소의 창너머로 웃음짓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주 보이군 했다.

그러던 어느 휴식날이였다. 그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이 있었다. 아버지의 전우인 한 영예군인의 집이였다.

《오늘부터 네가 아저씨의 담당리발사가 되여야겠다.》

(아, 그래서였구나!)

안정옥녀성은 어머니의 마음을 다소나마 안듯싶었다. 그는 휴식날, 명절날이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이동봉사를 하였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진정을 다 깨달은것은 아니였다.

언제인가 휴식날에 있은 일이였다. 해가 중천에 뜨도록 꿈속에서 헤매이던 안정옥녀성은 어머니의 다급한 부름에 겨우 눈을 떴다.

《너 벌써 내 말을 다 잊은게 아니냐?》

《어머니, 난 어제 하루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했어요. 이걸 봐요. 손가락이 다 부어오른걸. 오늘은 꼭 자고싶어요.》

하루일이 끝난 저녁 이미 계획한 영예군인에 대한 이동봉사를 위해 먼 밤길을 다녀온 그로서는 부어오른 손가락까지 보이면 동정해줄가 해서였다.

《네 속이 이젠 여무는것 같다 했는데 아직 멀었다. 너희들을 위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영예군인들을 위한 일인데 그까짓 손가락 부은것이 무슨 대수냐.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기로 하고 그들의 팔과 다리가 되여준 청춘남녀들을 보아라. 그 따뜻한 손길에서 영예군인들은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혁명의 꽃을 억세게 피워가는것이다. 너도 그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야 한다.》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였다.

(엄마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살겠어.)

그런 결심을 안고 후회없이 걷는 길이였다. 퇴근후에도 휴식일에도 명절날에도…

이동봉사로 늘 바삐 지냈지만 안정옥녀성은 힘든줄 몰랐다. 색바랜 그의 작은 수첩에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이름과 주소가 빼곡이 올라있었다.

명절날이나 그들의 생일날에는 안정옥녀성의 손에 리발도구와 함께 성의껏 마련한 보약과 기념품도 들려있었다.

하기에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은 그를 가리켜 우리 리발사라고 정답게 불렀다.

기업소당조직에서는 안정옥녀성의 아름다운 소행을 소중히 여겨 적극 내세워주었다.

당조직과 집단의 믿음,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정에 끌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그는 자기의 일터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39년이라는 세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해 걷고 또 걸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딸의 그 말에 안정옥녀성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그리고 몇해전부터 해주시편의봉사관리소 영광리발관에서 리발사로 일하고있는 딸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린 딸의 손목을 이끌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집을 찾아가던 때처럼, 사진사가 되겠다던 딸을 리발사로 내세우던 그날처럼 따뜻했다.

《난 다 알아요. 무엇을 생각했는지. 나도 어머니처럼 살겠어요.》

안정옥녀성은 자랑스러운 딸의 손목을 꼭 그러쥐였다.

이들의 희망찬 앞길을 축복하듯 밝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본사기자 리승철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신의주시상업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신의주시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로병보양소를 꾸려놓고 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을 받아안았을 때였다. 관리소일군들은 전쟁로병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줄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더 잘 받들어나가기 위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소장 리국찬동무는 일군들에게 조건은 비록 어렵지만 로병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사실 이곳 관리소에서는 지난 10여년동안 경치좋은 연하지구에 로병들을 위한 보양소를 꾸려놓고 그들의 건강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왔었다. 그런데 보양소의 일부 건물들이 낡아 보수를 해야 하였다. 소장의 이야기는 비록 짧았지만 일군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초급당비서 김영혁동무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소장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로병보양소를 개건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온 상업관리소가 떨쳐나섰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세멘트와 목재 등 건설자재들을 마련하면서 보양소를 현대적미감이 나게 꾸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건물보수공사가 끝나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로병들이 보양기간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할수 있게 호실들마다에 침대와 모포 등 침구류들을 더 좋은것으로 갖추어놓고 텔레비죤수상기와 유희오락기재들도 마련해놓았다.

상업관리소에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10여명의 로병들을 보양소에 청하여 그들이 충분히 휴식하면서 몸을 보양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그리고 보건기관과의 련계밑에 로병들의 건강관리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리명순, 리옥실, 변정미동무를 비롯한 관리소아래 봉사단위의 종업원들도 전쟁로병들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병사들을 위하는 마음

원군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재령국수집 지배인 리순옥동무와 종업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리순옥동무가 원군길을 걷기 시작한것은 어린시절부터였다.

해방전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온 그의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너희들도 있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교양하였다.

그의 가정에서는 해마다 온 가족이 떨쳐나 많은 돼지를 길렀다. 그렇게 길러 인민군군인들과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준 돼지만도 무려 100여마리나 되였다. 그 나날에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들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고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군대가 강해야 나라도 강하고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아버지의 지론은 어려서부터 리순옥동무를 원군길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원군미풍가정에서 자라난 리순옥동무는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제일처럼 도와나서군 하였다.

그런 그였기에 아들은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딸은 군관의 안해로 내세웠다.

몇해전 그가 재령국수집 지배인사업을 시작할 때였다. 지난 기간 인민군대를 물심량면으로 원호해온 리순옥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인민군대원호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리라 결심하였다. 그의 결심은 당조직과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배인사업을 갓 시작한 그의 앞에는 국수집을 개건하고 부업지도 개간해야 하는 등 많은 일감이 놓여있었다.

그것도 종업원들의 대부분을 이루는 녀성들의 힘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이여서 말처럼 쉽지 않았다.

40여년세월 원군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리순옥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단위앞에 맡겨진 일을 적극 내밀면서 원군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힘에 부쳤지만 그만큼 보람은 컸다. 지배인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몇달만에 2층짜리 건물이 일떠서고 10정보나 되는 부업지도 개간되였다.

리순옥동무와 종업원들은 부업지를 가꾸고 집짐승을 길러 국가적명절들과 기념일마다 밤새워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군 하였다.

리순옥동무는 종업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난 길을 가다가도 군인들을 보면 그들이 다 내 자식들처럼 느껴져요. 그래서인지 그들을 위한 일이라면 아까울게 없고 힘든줄도 모르겠어요.》

그의 솔직한 심정이였다.

리순옥동무는 군관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이 귀한 자식들을 네게 맡겼으니 병사들을 친동생처럼 사랑하라고 늘 당부하군 하였다.

그러한 리순옥동무이기에 종업원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나갈 때면 기념품을 안겨주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었고 영웅된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역전까지 나가 바래주군 하였다.

리순옥동무와 종업원들은 군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들에 대한 명절봉사도 특색있게 진행하고있다.

하기에 읍에 사는 영예군인 리성철동무는 해를 넘기며 자기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이곳 종업원들을 두고 혈육인들 이보다 더하겠는가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고있다.

원군길에 진심을 바치는 이런 원군미풍열성자들이 많아 우리의 일심단결이 그렇듯 굳건한것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박철

일본군성노예문제협상《타결》은 불법무도한 정치협잡행위이다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지난 세기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와 대륙침략에 의해 산생된 전대미문의 일본군성노예문제가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에 도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에서 발표된 그 무슨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기화로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이 저저마다 《성공》과 《환영》, 《지지》를 떠들어대고있다.

동맹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였다고 떠드는 미국과 《합의》의 원칙고수를 요란스럽게 증폭시키는 일본, 몇푼의 돈에 민족의 자존심은 물론 권리마저 팔아먹은 남조선당국이 저들나름대로의 정략적목적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합의 아닌 《합의》를 놓고 심상치 않게 번져지는 미국, 일본, 남조선의 정치군사적움직임은 조선민족과 국제정의에 대한 중대도발이고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

1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에서는 일본남조선외교장관회담이 급기야 열렸다.

회담에서는 일본의 파렴치성과 남조선의 굴욕적인 태도가 일치되여 국제법률적요구와 절차에 따르는 공식문서도 남기지 않은 《합의》가 전격발표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가 발생하여 근 한세기, 국제무대에 정식 상정되여 20여년, 남조선에서만도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1,210여차 진행되였으나 일본은 국가적, 법적배상은 고사하고 피해생존자들의 초보적인 권리와 명예회복마저 무시해버리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간특한 일본이 협잡과 기만, 몇푼의 돈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을 얼려넘겨 만들어낸 추악한 정치적흥정물이며 일대 사기극이다.

전범국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에게 들씌운 과거범죄사를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의 력사》, 《제국의 영광의 력사》로 추어올렸으며 일제의 특급범죄에 대해서는 《인류문명발전에 대한 기여》로 미화분식하였다.

이번 《합의》는 과거범죄를 매장해버리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책동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회담에 앞서 일본집권자는 협상당사자를 불러들여 남조선과 절대로 타협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표현을 박아넣지 못하는 경우 회담을 걸어치우라고 압박하였다.

결국 일본은 협상에서 《군의 관여》와 《책임통감》이라는 모호한 말마디로 범죄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국가적,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합의》발표후에는 극우익보수세력들과 매문지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론조성에 열을 올리였다.

일본당국자가 남조선집권자와의 전화대화에서 《일본과 〈한국〉사이의 재산청구권문제가 1965년의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였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합의〉로 다시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것을 환영한다.》고 력설하였으며 국회 회의를 비롯한 여러 기회들에 이 립장을 고집하였다. 1965년 당시 일본남조선《협정》체결시에 일본군성노예문제가 론의조차 되지 않았으나 이제와서는 그것이 마치도 이미 다 해결되였던 문제인듯이 강변하고 있다.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일본은 녹거리자금지출로 국제정의와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모독하고있다.

원래 일본은 회담에 림하면서 피해생존자들에게 1억¥을 지출하는것으로 범죄를 덮어버리려 하였다. 그런 일본이 마치도 《〈한국〉당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10억¥의 자금을 내기로 한듯이 생색을 내면서 그것이 피해생존자들의 《상처치유와 존엄회복비용》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그것마저도 국가적배상이 아니라는것을 강조하는데 힘을 넣고있으며 남조선이 재단을 설치하면 《지원》의 명목으로 내겠다고 하고있다. 협상당사자였던 외상이 나서서 《일본정부가 재단설립에 내는 자금은 배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법률적으로 볼 때 배상은 범죄로 산생된 손해에 대한 지불이다.

일본당국이 내겠다고 하는 자금을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떠드는데는 전범국 일본으로서가 아니라 《정상국가》, 《인도주의국가》로서의 일본이 마치 국제적의무를 리행하고있는듯이 부각시키려는데 그 정치적목적이 있다.

일본은 극악한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상징물인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세워져있는 소녀상을 없애버리는 조건에서만 자금을 낼수 있다고 하면서 《선 소녀상철거, 후 자금제공》을 들고나오고있다. 그것이 《합의》의 핵심이며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떠들면서 남조선당국에 하루빨리 철거하라고 삿대질을 해대고 《일본군〈위안부〉백서》를 출판하려는 남조선을 압박하고있다.

일본이 이번에 남조선과 협상탁에 나선데는 《합의》발표로 과거범죄사를 력사의 흑막속에 영영 묻어버리고 더이상 국제무대에 상정되지 못하게 하려는 흉심이 깔려있다.

현 집권자가 《자식들과 손자, 그 후세까지 계속 사죄하게 하는 숙명을 지니게 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외상이 《일본이 잃은것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0억¥뿐이다.》고 한것은 그 진의도를 명백히 알수 있게 하고있다.

《합의》가 나온 직후 외무성 인터네트홈페지에 《군의 관여》와 《책임통감》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문장을 올리지조차 않은것은 일본의 교활함과 철면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신문 《헤랄드경제》가 《아베가 웃는 5가지 리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첫째로 《강제련행》 인정하지 않아, 둘째로 모호한 《법적책임》, 셋째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에로의 진출발판마련, 넷째로 비판외교중단약속, 다섯째로 소녀상이전 가능성이라고 평한것은 일본이 《합의》로 얼마나 큰 리익을 얻었는가 하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빈껍데기뿐인 《사죄》와 단돈 몇푼으로 과거 일본이 국가조직적으로 감행한 성노예범죄행위를 매장시킨것은 또 하나의 반인륜적범죄이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조선민족과 인류량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미국과 일본을 하내비처럼 섬기는 쓸개빠진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이번에 드러낸 추태는 천추만대를 두고 철저히 계산되여야 할 사대매국행위이며 극악한 민족반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일본과의 협상 전 과정에 상전들의 조종하에 꼭두각시마냥 놀아나온 민족의 분노와 한을 폭발시켰다.

국제적, 법률적규정은 안중에도 없이 민심이 두려워 공식문서작성마저 그만두기로 한 현대판《을사오적》들이 치졸한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당국자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대승적견지에서 리해해달라.》고 하였는가 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대표 등이 나서서 현 집권자와 《정부》의 《치적》을 요란스럽게 광고하였다.

일본의 간특한 행위를 《과거범죄에 대한 성근한 사죄》로 묘사하는 한편 치욕스러운 제2의 《〈한〉일협정》을 산생시킨 저들의 매국행위를 력사발전과 동맹강화에 대한 《기여》로, 《외교적성과》로 둔갑시키고있다.

친일에 얼마나 환장했는지 일본이 《〈위안부문제〉는 3억¥정도면 해결할수 있다.》, 《버티면 〈한국〉이 스스로 찾아올것이다.》고 떠벌였을 때에도, 과거 조선인강제징용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버젓이 등록시켜도 항변 한마디 못한 매국노들이 바로 현 남조선집권세력이다.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아닌보살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두둔, 인정하는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고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분야별회담을 본격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역적패당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고 미국과 일본에 아부굴종하여서라도 저들의 장기집권실현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학생들과 어린이들까지 친미친일독재《정권》에 침을 뱉고 일본과의 부당한 《합의》를 전면무효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특대형반인륜적범죄로 조선민족과 아시아적 인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일본의 죄악을 무마시킨 남조선집권세력에 대한 울분이 세차게 분출하고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돈과 바꾼 협상》, 《죄악의 외교참사》, 《일본에 면죄부를 준 매국협정》으로 준렬히 단죄하면서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과 시국선언 등을 통해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소녀상을 지키고 더 많이 설치하기 위한 투쟁이 확대되고있다.

광범한 국제사회도 미국의 강박과 일본의 회유에 의한 음모의 산물로 대대적으로 비난하고있으며 세계각지에서 국제적련대운동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다.

지난 세기 일제가 감행한 범죄들은 국가적, 조직적범죄로서 철저히 국가적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피로 물들여진 일본의 전범기록은 결코 세기가 바뀐다고 하여 퇴색되지 않는다.

잔악무도한 일본의 모든 범죄는 국가적, 법적책임인정과 사죄, 배상이 없이는 최종적으로 해결될수 없다.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조종이나 중재에 의해 어물쩍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몇푼의 돈으로 어수룩한 상대나 얼려넘겨 해결될 문제는 더우기 아니다.

일본의 과거범죄들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정의가 반영된 국제법들에 따라 계산되고 청산되여야 할 반인륜적범죄이다.

따라서 국가적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그와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여야 한다. 후대교육을 위해서도 력사교과서들에 일제의 만행들이 정확히 반영되여야 한다.

반인륜적인 범죄들에는 시효가 없다.

2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철두철미 미국이 동맹강화를 목적으로 일본과 남조선을 막후조종하여 만들어낸 음모의 산물이다.

최근년간 미국은 동맹강화에서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로 되고있던 일본과 남조선의 력사인식문제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무진애를 써왔다.

오바마가 일본과 남조선을 번갈아 행각하면서 당국자들에게 《타협》을 선동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남조선집권자들을 워싱톤에 불러들여 몸값을 높여주면서 저들의 립장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강박하였다.

일본당국자가 과거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인정과 사죄반성을 교묘하게 회피하였지만 눈감아주고 모르는체 하였다. 나중에는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치욕을 당한 수많은 녀성들을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모독하였으나 아닌보살하였다.

일본의 처사를 지지해주면서 그들이 앞으로 력사인식문제에서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었던것이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자의 미국행각기간에도 《력사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일본관계의 회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일본의 과거범죄를 덮어버리도록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의 집권자들을 회유, 강박하여 협상탁에 마주앉게 만들었다.

이로써 남조선집권자의 미국행각이 끝난지 며칠 안되여 일본남조선《수뇌회담》이 열리고 년말까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합의》하기로 약속하였던것이다.

지난 1월 2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이 오바마가 그동안 일본에 과거문제를 해결할데 대해 여러차례 촉구하였다고 한것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배후조종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스스로 폭로해주고있다.

미국은 《합의》도출을 위한 일본남조선협상에도 깊숙이 개입하였다.

관계자들의 회담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거기에 고위급들이 나서도록 강박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남조선측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게 되였다. 결국 12월 28일에 일본남조선외교장관회담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문서장도 남기지 않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였던것이다.

남조선신문 《서울경제》는 일본남조선간의 《합의》뒤에 미국의 강박이 있은데 대해 다음과 같이 까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붕〉은 미국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위안부문제〉를 타결하라고 강박해왔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물밑에서 관계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문제해결을 독려해왔다는것이다.

오바마가 지난해 11월에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수상에게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한것으로 전해졌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합의〉후 가장 기뻐하는 나라는 미국이다.》고 폭로하였으며 중국의 신화통신은 《〈합의〉는 미국의 압력속에서 만들어진 정치적선택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신문 《프레시안》은 미국의 한 활동가의 다음과 같은 평을 실었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치동맹이 필요했고 이 동맹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위안부문제〉였다. 결국 미국은 세계패권유지,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의한 과거 제국의 영광재현, 〈한국〉은 미국에로의 맹종이라는 팡기에 이끌려 수십만 녀성들의 생명과 인권, 존엄과 명예가 달린 중대한 문제의 근원적해결을 막아버렸다.》

도이췰란드의 도이췌 웰레방송이 《〈합의〉를 통해 미국은 북조선과 중국의 영향력확대에 맞선 동아시아지역의 전선을 결속하기 바랐다.》고 까밝히고 영국신문 《가디언》이 《북조선과 중국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일본남조선간의 화해를 촉구해온 미국에 있어서 성공으로 된다.》고 전한데는 일본남조선회담막후에 비낀 미국의 진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동하게 시사해주고있다.

언론들이 평한바와 같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두 주구들을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백악관의 각본과 연출에 의해 만들어진것이다.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은 21세기 세계정복전략의 중핵이며 기둥이다.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이 지역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전략이다.

오바마행정부는 집권후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을 적극 추진하여왔으며 미국밖에는 《그 어느 국가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지 못할것이다.》고 떠벌였다.

국가안보전략보고서, 국가군사전략보고서, 미일방위협력지침 등에서 대아시아지배전략과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주요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군사적으로 쇠진해지고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재정원천이 고갈된 미국이 그것을 저들의 힘으로 실현한다는것은 그야말로 힘에 부치지 않을수 없었다. 이로부터 다자주의적《협조》를 제창하면서 동맹강화를 추진하고있다.

2015년을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 3자공조실현을 위한 진전의 해로 선정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번영을 이끄는 주도적역할을 하는 세력》으로 추어올리면서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범위를 전방위적인것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남조선에 첨단무기들을 투입하고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군사력을 보다 강화하게 만들었다.

미국무장관을 비롯한 정계 및 군부호전분자들은 미일남조선의 미래지향적관계에서 장애물이 제거되였다고 패재를 올리고있다. 일본남조선집권자들의 《결단과 용기》를 운운하면서 그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일》로 된다고 희심의 미소를 짓고있다.

신문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주요언론들은 두 동맹자들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전략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인 홍콩봉황망이 《〈위안부문제〉는 〈한〉일관계에서 눈에 든 가시같은 존재였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을 동맹자로 하고있는 미국의 머리를 아프게 해왔다. 최근년간에 들어 미국은 아시아재균형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동맹인 일본의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여왔지만 미국의 또 다른 동맹인 〈한국〉이 일본의 움직임을 강하게 반대하며 엇박자를 내왔던것이다.》고 한것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로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이 한결 수월하게 강행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평한것이다.

《합의》후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의회의 요청으로 국방성과 함께 작성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사력균형에 관한 보고서에서 동맹 및 협력세력들과의 안보력량을 강화하며 지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강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로씨야,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가안보를 위협》하는 4대국가의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우리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동맹강화의 필요성으로 내세우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북조선위협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고 대국들의 주변에 장벽을 만들려는 백악관의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로씨야의 스뿌뜨니크방송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나토와 류사한 기구를 만들어놓고 중국을 견제하려 하며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선을 또다시 《희생물》로 삼으려 하고있다고 평하였다.

미국이 우리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구축이 필요한듯이 력설하고있지만 실지로는 저들이 지정한 《4대위협국가》중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한 3개의 정치군사대국의 국력이 강화되는것을 억제하고 대아시아지배전략을 손쉽게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국무성 부장관이 《미국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촉구한것은 단순히 일본과 남조선이 잘 지내기를 바란것이 아니라 군사적,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북조선과 중국 등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또 그런 리유때문에 오바마가 지난 몇년동안 일본과 〈한국〉의 정상을 만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이 문제를 거론해왔다.》고 한것은 백악관의 흉심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실지로 《합의》후 미일남조선의 군사적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1월 15일 유도미싸일순양함 《모빌 베이》호와 유도구축함 등을 포함한 미핵항공모함 《존 씨. 스테니스》호전단이 조선반도주변과 동북아시아지역에 장기주둔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핵항공모함전단의 동북아시아지역에로의 진출이 《북조선에 힘을 과시하고 중국남해의 분쟁과 관련해 우방을 지원하기 위한것》이며 《동맹자들과 함께 다양한 훈련에 참가하고 통합력량을 강화할것》이라고 한 언론들의 보도는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에 따른 새 전쟁도발을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

미군특수정찰기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찰행위를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 미국의 3대핵타격수단의 하나인 《B-52》전략폭격기가 동북아시아지역을 뻔질나게 배회하며 미공군의 《F-22》최신예스텔스전투기들이 일본의 미군기지들에 날아들었다.

지난해 우리의 핵 및 미싸일을 탐지하고 파괴하기 위한 전쟁각본으로 미국과 남조선이 짜맞춘 《4D작전계획》을 올해 최대규모로 전개되는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기간에 처음으로 적용하려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가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전쟁동맹인 미일남조선동맹을 합법적으로 가동시키려고 조작한 제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로골적인 동맹강화책동에 의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있다.

* *

침략과 전쟁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과 《정상국가》로 둔갑하려는 일본의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상전들에 빌붙어 연명해가는 남조선매국노들의 생존방식 역시 여전하다.

강권과 간특함, 비굴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일본군성노예문제협상《타결》은 전쟁세력들이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해 조선민족과 인류량심을 짓밟고 우롱한 21세기의 특대형정치협잡행위이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조선반도의 남쪽에만이 아니라 북에도 있고 다른 아시아나라들과 유럽에도 있다.

피해자들뿐아니라 피해지역 나라와 민족들은 국제적인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과거청산을 옳바르게 해결할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국제정의를 외면한 적대세력들의 만고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긴다면 그가 누구이든 적대세력들의 동맹강화책동의 반동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1월 31일
평 양

오늘의 세계

분렬의 갈림길우에 놓여있는 유럽동맹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유럽동맹의 전도를 위태롭게 하는 부정적분위기가 계속 떠돌고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그로 인한 유로가치의 불안정 그리고 거리에 차넘치는 실업자대군, 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의 확대와 주요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의 의견상이 등이 점점 더 표면화되고있다.

피난민위기는 유럽동맹이 안고있는 가장 큰 난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물밀듯이 쓸어들고있는것으로 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아우성을 치고있다.

국제이민기구의 공식대변인이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년초에 들어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온 이주민수는 3만 6 899명이나 된다. 피난민위기로 말미암아 나라들사이의 외교적마찰이 심화되고 지어 유럽동맹의 기반이 통채로 흔들리고있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피난민들을 《공평하게 할당》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자 동유럽나라들은 불공평한 제안이라고 항변하며 반대해나서고있다. 이로 하여 서유럽과 동유럽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표면화되고있다.

그러한 가운데 도이췰란드가 피난민류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 벨지끄, 룩셈부르그와의 국경지역에서 검열제도를 재도입하고 프랑스, 네데를란드도 국경검열제도를 재가동시킴으로써 유럽의 통합을 안받침해주고있는 《엔겐협정》의 기초가 허물어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유럽동맹이 금융위기에 이어 전례없는 피난민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유럽통합의 꿈이 깨여져나가고있는것을 시시각각 느끼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지난 시기 유럽동맹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면서 정치, 경제, 안보, 외교분야에서 독자성과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련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한 유럽동맹이 오늘날에 와서 성원국들로부터 신뢰를 점점 잃고있으며 동맹내부는 나날이 복잡해지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지역적통합기구로서의 유럽동맹이 내세운 《통일된 유럽건설》구상이 과연 실현가능하겠는가 하는데 대해 회의심을 표시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유럽동맹 성원국들속에서 저마끔의 출로를 찾는 현상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유럽에서 그 첫번째 희생물로 되여 유로사용지대에서의 탈퇴문제까지 제기되였던 그리스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나라의 발전전망은 락관적이지 못하다.

유럽동맹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나라를 구제하기 위한데 자금을 내려 하지 않고있는 형편이다. 가뜩이나 채무위기로 고충을 겪는 형편에서 남을 도와줄 겨를이 없다는것이다.

채무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날로 커가는 속에 유럽동맹내에서는 어떻게 하나 유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안들도 토의되고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동맹내부에 짙게 떠도는 모순과 나라들사이의 의견불일치로 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있다. 구제대상이 점점 늘어나고있는데 불안을 느낀 유럽동맹은 지금 어느 길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고있다.

영국인들의 대부분도 유럽동맹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있다. 지속되고있는 유럽동맹의 경제위기, 급격히 늘어나는 피난민대렬은 영국으로 하여금 동맹탈퇴라는 선택안까지 검토하게 하고있다.

영국은 유럽동맹내에서 사법, 금융, 시장, 이주민대우정책 등 분야에서 《특수지위》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 조건이 접수되지 않는 한 자기 나라가 유럽동맹에서 탈퇴할것이라고 주장해나선 상태이다.

영국이 유럽동맹탈퇴문제를 거론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초에 영국수상 캐머론은 자기가 속해있는 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2017년말전으로 영국의 유럽동맹탈퇴여부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진행할것이라고 처음으로 공약하였다. 그동안 영국의 유럽동맹탈퇴에 관한 문제는 오래동안 질질 끌게 되였으며 영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모순은 점점 악화되였다.

이런 속에서 얼마전 영국이 유럽동맹탈퇴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과반수 영국인들이 다가오는 국민투표에서 유럽동맹탈퇴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영국이 자국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면서까지 유럽동맹에 남아있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영국의 유럽동맹탈퇴주장과 함께 동맹내부가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지금 유럽동맹의 신뢰도는 력사상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유럽나라들은 골머리를 앓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앞으로 유럽동맹이 독자성을 견지하고 민심에 부합되는 새로운 출로를 찾아야 자기의 얼굴을 국제사회에 똑똑히 보여줄수 있고 국제무대에서도 발언권을 세울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란이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1월 25일 이 나라 에네르기상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방출량을 12% 줄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력발전소건설 계획

기네에서 최근 수력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에 따라 5년안으로 폰꼬 메강에 45만kW의 발전능력을 가진 수력발전소가 건설되게 된다 한다. 계획실현에 많은 자금을 돌리기로 하였다.

경제장성전망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나라들에서 올해 경제가 0.7% 장성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1월 25일 유엔이 밝혔다.

한편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올해 경제장성률이 4.4%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0.7% 높은것이라고 한다. 1월 26일 유엔이 밝혔다.

전염병방지노력

나이제리아에서 라싸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그 한 고리로 정부는 라고스주의 여러 지역에서 열병을 퍼뜨리는 쥐를 박멸하기 위한 깜빠니야를 벌려 수천마리의 쥐들을 없애버렸다.

현재 라싸열병으로 17개 주에서 76명이 목숨을 잃고 200명이상의 환자가 등록되였다고 한다. 1월 26일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혔다.

항공운수부문 성과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짱이비행장을 통과한 려객수가 그 전해에 비해 2.5% 늘어났다.

1월 27일 비행장운영당국이 밝혔다.

필리핀성노예피해자들 일본에 배상 요구

구일본군에 의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필리핀녀성들이 최근 일제가 저지른 성노예범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군이 수많은 필리핀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데 대해 폭로하면서 일본정부가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정부급에서 배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또한 필리핀력사교과서에 구일본군의 성노예범죄문제를 포함시킬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필리핀에서 반일시위

ㄱ-61017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